

SK네트웍스, 중국과 중유가공 합작

2200만달러 투자해 중유 2차가공 100만톤 공장 건설 ... 2007년 가동

SK네트웍스는 7월18일 중국 저장(浙江)성 타이저우(泰州)시와 중유 2차 가공공장 건설에 대한 투자의향서를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SK네트웍스와 타이저우시, 중국 전자기업 광성전자(廣盛電子)는 총 2200만달러를 투자해 2007년 상반기까지 연간 100만톤의 중유 2차 가공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SK네트웍스는 중국과의 투자의향서 체결로 2007년 중국 석유제품 도매시장 개방을 앞두고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SK네트웍스는 7월9일 중국 선양(瀋陽)시와 복합주유소 사업 등에 관한 전략적 제휴 MOU를 체결하는 등 중국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SK네트웍스 정만원 사장은 “15년간 축적된 에너지사업 경험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중국과의 합작사업에 참여하게 됐으며, 투자계약 체결이 저장성 및 타이저우시와의 지속적인 교류와 미래지향적인 관계유지의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5/07/20>